

연변 아트사커여자축구팀

더 많은 여성들이 축구운동의 즐거움 나누길 희망



‘축구의 고향’ 연변에는 퇴근후 혹은 주말 여유시간에 축구운동을 즐기는 조기축구팀과 축구애호가들이 많다. 모두들 축구장에서 열정에 차넘쳐 공을 차고 맘을 흘리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의 우의와 심신건강을 다진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연변의 아마추어 축구계에 ‘볼공의 장미’로 전방 축구생태계에 색채를 더해주는 여자조기축구팀이 있다. 그 팀의 이름은 바로 드래곤 아트사커여자축구팀(이하 ‘아트사커팀’)이다.

2022년 6월 설립된 아트사커팀이 지역 여성들의 단합과 열정을 통해 연변의 아마추어 축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팀은 한국 여성 축구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영향을 받은 연길드래곤축구교실의 전광룡 코치 부부가 “연변에도 여성들이 마음껏 축구를 즐길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현재 30여명의 팀원(20대~40대)이 활동중이며 특히 조선족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트사커팀의 팀장 최옥화는 “남성들은 축구활동이 많지만 여성들이 뭉쳐 스포츠활동을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다. 당시 결혼한 여성들이 단체 스포츠활동을 더 원했다.”고 하면서 “주말마다 모여서 운동하고 맘 흘리고 서로 교류하면서 여러 연령대가 함께하는 축구팀으로 되었다.”고 소개했다.

연길드래곤축구교실의 전광룡, 박연수 두명의 코치가 여자축구교실을 시작으로 구성된 아트사커팀은 팀내 훈련과 대외 교류전 등 주 2회 축구활동을 통해 실력을 갈고닦으며 성장해왔다. 초창기에는 코로나 19와 겨울철 참여 인원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팀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 안정적인 규모를 갖췄다. 최옥화 팀장은 “남성팀과의 교류전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경기 리

해도와 전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국내 여러 도시들에서 여성들이 아마추어 축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틈틈이, 콕썬 등 미니동영상 플랫폼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에서 아마추어 축구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트사커팀이 설립되면서 축구에 흥취 있고 축구를 좋아하며 단체운동에



2023년, 북경 여자 아마추어 축구 친목경기에 참가한 아트사커팀 선수들(좌와우).

참. 여하고 싶은 여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이 생겨난 것이다. 처음 축구를 시작하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때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여성들도 팀에 가입하여 함께 축구를 즐기고 있다.

2023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여자 아마추어 축구 친목경기에 참가해 전국에서 온 6개 팀과 겨룬 경험이 아트사커팀의 전환점이 됐다. 최옥화 팀장은 “연변 유일의 여성팀이라 남성팀들과만 경기를 하던 팀원들에게 같은 여성팀과의 경기는 신선한 자극이었다.”며 “1승 1무 1패의 성적이 아쉬웠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팀의 핵심 철학은 “축구로 즐거움을 나누자”이다. 최옥화 팀장은 “기술 유무를 떠나 여성들이 함께 맘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에게 매주 활동 참여는 쉽지 않다. 남편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한 팀원의 남편은 경기 영상을 촬영해 팀에 제공하며 적극 뒤바라지기에 나서고 있다.

개인사에서도 축구는 변화의 계기가 됐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옥화 팀장은 “나이 들며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등산, 달리기 등 운동을 해왔지만 격렬한 운동은 축구가 처음이었다.”며 “축구를 통해 체력은 물론 반응 속도까지 개선됐다. 그러면서 축구운동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팀은 설립 2주년을 맞은 2024년 7월, 운동회를 개최하며 축구, 줄다리기와 릴레이 등으로 팀워크를 다졌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팀이 생겨 교류하며 연변 여자 아마추어 축구의 영향력을 국내외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팀의 홍보 담당 김유진씨도 “의외로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축구의 즐거움을 나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트사커여자축구팀은 단순한 스포츠 모임을 넘어 연변 여성들의 도전과 열정이 빛나던 동아리로서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 김파기자

2025년 연변주 서향만리 강연 행사 펼쳐



3월 4일 오후, 연변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공청단연변주위, 주부녀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독서협회, 연길시전민독서협회에서 주관한 ‘읽기·서술(读·抒)’ 2025 연변주 서향만리 강연 행사가 연길시 복산가두 단청사회구역에서 있었다.

행사에서 연변 제1회 ‘읽기·서술’ 선수권대회 수상자들이 <홍색서적에서 분발의 힘을 섭취하자>, <영원한 조국>,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 ‘석류꽃이 피었다’로부터 본 새시대 민족사업의 주선>, <강철과 불의 담금질 속에서 청춘의 혼을 주조하자>는

등 제목으로 독서 공부를 진행했다. 이날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복산가두 단청사회구역에 도서도 기증했다.

이번 활동은 연변의 제1회 ‘읽기·서술’ 선수권대회 수상자들의 독서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교육 경로를 적극 확장하고 주조했으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의 독서 열정을 불러일으켜 중국식 현대화 새연변을 건설하기 위해 강대한 정신력을 결집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아마추어 축구경기서 반칙으로 골절상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할가?



최근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한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 동작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에 그는 상대 선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에서 반칙으로 인한 부상,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가?

사고 당시 원고 김씨가 공격자로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 피고가 발을 내밀어 공을 빼앗는 바람에 원고의 중심이 불안정하여 땅에 넘어졌다. 경기후 병원을 찾은 김씨는 오른쪽 세번째 손바닥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원고 김씨는 자신이 손을 다친 것은 상대방이 반칙 동작을 해 자기 발을 밟는 바람에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비, 로동지연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등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 전녀사는 피고가 공을 막다가 오른쪽 발로 원고의 오른쪽 발을 밟았으며 당시 원고는 힘을 쓰는 상태였고 오른쪽 발을 밟힌 뒤 힘을 겨두어들이지 못해 관성으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가 다친 것은 피고가 축구에 위험하고 자신도 축구로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다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그가 한 것은 정규적인 수비 동작으

로 악의적인 반칙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가?

법원은 축구경기는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이므로 이 사건에 자발적 위험 감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민법전 제 1176조(자발적 위험 감수 조항 규정이라고도 함)에 따르면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문화스포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참가자의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기타 참가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경기 영상을 분석해 원고의 부상이 피고의 공차단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의 행위는 축구통제권을 다투기 위한 것이지 원고의 신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체육규칙 위반이나 반칙은 법률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구경기 고유의 위험, 당사자의 기술 수준, 피고의 동작 의도와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부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 청구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았다.

/ 인민넷

농촌에서 펼쳐진 ‘퇴봉 따라배우기’ 예술봉사활동

제 62회 ‘퇴봉 따라배우기 기념일’을 맞아 지난 3월 5일,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계연합회(연변주문련)와 연길시문련은 예술자원봉사자들과 전체 사업일군들을 이끌고 연길시 조양천진 합성촌에 찾아가 ‘3.5 퇴봉 따라배우기 예술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습근평 총서기의 퇴봉 따라배우기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 지시 정신을 실천하고 ‘기층 강화 프로젝트’(强基工程)를 심화하며 새시대 문명실현 예술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과 봉사 활동을 결합해 농촌을 대상으로 특장을 살리고 퇴봉정신 학습을 계승하고 확

산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을 제공해 우수한 자원이 현장까지 직접 전달되도록 했다.

이날 오전, 연변주예술자원봉사자협회 위원장이며 연변가무단 일급 배우인 임향숙가수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엄마의 아리랑> 노래 지도를 진행했다. 임향숙가수는 감동적인 노래

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기본 발성 기술부터 호흡법, 음정 잡는 법, 공명 활용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열심히 따라했고 연습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일대일로 발음과 제스처를 교정했다. 문련 사업일군들과 주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음과 환호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장이 펼쳐졌다.

예술봉사활동외에도 주(시) 문련 사업일군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새시대 문명실현 봉사활동도 적극 펼쳤다. 마을 곳곳을 돌며 환경 정화, 독거로인 및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 비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가와 화단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민호를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 상황을 파악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퇴봉 따라배우기 활동은 연변주문련과 연길시문련이 사회주의핵심 가치관과 퇴봉 따라배우기 정신을 실천한 생동감 있는 현장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신문화생활이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원, 사업일군 및 예술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의식과 기여 정신도 강화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일상 속에 퇴봉 따라배우기 정신을 담아 예술봉사를 지속하며 예술의 힘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 문예사업 발전과 문명사회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